

# “즐이고 아껴도 나눔 있어 이겨낼수 있었죠”

3년 전 갑작스럽게 지구촌을 뒤흔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간의 세월 속에 일상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표준을 뜻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코로나19와 함께 한 3년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상 속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특히 방역이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자유가 억압 받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개인보다 단체를 중요시했던 조직 문화에서 탈피해 '가족'과 '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됐다.



추석을 앞둔 7일 오후, 광주 북구청어린이집 원생들이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채 율농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즐기는

### 혼자하는 여행·식사...온전히 내시간 즐길수 있어

직장인 정경숙(39)씨는 코로나19 덕에 혼자서 소중한 일상을 깨달을 수 있었다. 15년 차 직장인인 그에게 평일 점심시간은 대부분 거래처 관계자나 상사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사자리에 동석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업무의 일부라고 느껴질 정도로 여간 불편하게 아니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업무에 대해 넘치는 의욕과 자부심은 불편한 점심시간마저 당연하다 여기고 넘어간 시간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재택근무가 잦아졌고 혼자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늘자 그녀의 생각에도 변화가 왔다. 혼자하는 점심시간 1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뀌어갔다.

내가 먹고싶은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했고 그다지 허기지지 않다면 여유롭게 베이커리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한 시간동안 업무를 잊고 주문한 커피와 빵을 즐기며 여유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경숙씨는 "함께하는 식사자리에 염증을 느끼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혼자가 된 점심시간이 이제는 힐링하는 시간이 됐다"며 "코로나 초창기엔 자유를 억압받는 시기가 생각했지만, 우연한 기회로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혜라(28)씨는 코로나19로 새로운 여행을 즐기는 중이다. 1년에 서너 차례 해외여행을 갈 정도로 나라별 여행계획을 세우는 게 취미였지만, 코로나로 해외출국 길이 막히면서 그녀는 시선을 국내로 돌렸다. 국내여행은 확장시절 수학여행이나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다녀본 게 전부였지만, 최근 3년 간 강원도와 경기도 제주도 등 그동안 눈길조차 가지 않았던 국내 여행지 곳곳을 혼자 돌아보는 중이다.

헤라씨는 "국내여행을 다니다 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됐다. 특히 사람 없는 곳을 피해 젊은층이 잘 다니지 않는 사할 문 등화재를 혼자 찾는 재미가 쏠쏠"이라며 "과거엔 혼자 떠나는 여행은 엄두가 안 났지만,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었고 생각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지만 올 겨울 제주도 한라산 등반은 꼭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즐이는

### 높은 물가에 금리 인상까지...차분해진 명절

코로나 19 팬데믹 3년만에 풍성했던 한가위가 확 달라졌다. 그 해 거둬들이 쌀과 과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가족, 친지, 이웃들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어서다. 코로나19에 러-우크라 전쟁 등 온갖 악재가 겹쳐 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잇단 금리 인상으로 가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넉넉하고 풍요로워야 할 추석 명절임에도 서민들의 시름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명절 대목을 누려야 할 상인들은 비싼 농축수산물 가격에 "파는 것도 미안할 지역"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사는 손님들도 얹어진 지갑 탓에 선택 장바구니를 채우지 못한다.

한숨이 깊어지는 건 상인들뿐만이 아니다. 치솟는 물가에 대출금리가 가중되면서 지갑이 얹어진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마음 편히 먹지도 못할 정도다. 당연히 차례상 차리는 것조차 부담을 느낀 서민들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지난달 새 아파트 입주했다는 김모(40)씨는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은행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은 그는 분양 당시 2%대였던 금리가 4.66%까지 올라 이자 부담만 매달 40만원이 더 늘었다. 그렇게 앞으로 35년간 매달 14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김씨는 "월급 실수령액이 300만원 정도인데 대출금과 공과금 등을 제하면 수준엔 70만~80만원이 고작"이라며 "생활비조차 빠듯한 탓에 이번 추석에는 상차림을 줄여 차례를 지내고 음식도 간단히 장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3년, 여러 번 명절을 맞다 보니 아예 차례를 없애는 것은 물론, 슬프고 기쁜일 일수록 널리 알리고 나눠야 한다는 오래된 장례문화와 결혼문화 역시 큰 변화를 맞았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을 방문해 "얼굴을 비추야 한다"는 강박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계좌를 통해 부인의 금을 송금하는 것이 이제 문화가 됐다. 명절과 집안의 애정사가 있을 때면 일가 친인척을 비롯한 대가족, 지인들이 한데 모여 안부를 전하고 웃음꽃을 피웠던 우리의 오래된 문화도 코로나19 팬데믹 3년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나누는

### 힘들수록 나눔 실천...더 풍성해진 '명절 온정'

"코로나19에 고물가까지, 어려운 시기지만 명절 때만이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일 광주시 북구 임동 행정복지센터에 익숙하고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다. 지난 2011년부터 명절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기부금을 전달해 온 노대숙(81)씨다. 수십년 화학 약품을 다루는 일을 해 온 터라 거칠어진 그의 손에는 이날도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다.

노씨는 11년에 걸쳐 총 23차례 기부를 해 총 1230만원을 냈다. 어렸을 적 부모가 동네 주민들과 음식을 나누며 명절을 즐겼던 것처럼, 자신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2월부터 "힘든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본인이 나눔을 더 실천해야 한다"며 기부금을 70만원으로 늘렸다.

코로나19 3년의 세월로 가장 힘들었던 건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이었다. 코로나19는 '비대면'을 일상처럼 바꾸었고, 사람들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하게 됐다. 자연스레 소외 이웃을 위한 관심과 온도도 줄어들었는데 광주·전남 보육원, 복지관 등에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후원금이 10~50%까지 줄어들었다는 한탄이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명절 온정'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최근 길었던 팬데믹이 끝날 기미를 보이면서 다시 불이 붙고 있다. 힘든 때일수록 자신보다 오히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이들이 나눔의 의지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최근 노씨와 같은 뜻을 갖고 명절 기부를 하는 이들이 속속 늘고 있다. 광주시 북구 두암2동 새마을협의회는 6일 쌀 10kg 30가마니를 독거노인, 어려운 가구 등에 기부했으며, 광주시 북구 중앙동에서도 개인기부자 조종석씨 등이 지난달 31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나눠달라며 10kg 쌀 10가마니 등을 기부했다. 동 행정복지센터뿐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여러 단체에서도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연지동 348-12번지 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공고 제 2022-09-01 호

### 연지동 348-12번지 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입찰공고

연지동 348-12번지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① 사업명 : 연지동 348-12번지 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 ② 사업장 위치 및 사업면적 : 정음시 연지동 348-12번지 일원 / 7,420㎡ 상업지역
  - ③ 사업규모 : 지상30~36층(지하2층)이내, 공동주택 약320~340여 세대 및 판매관리시설 연면적 약49,000㎡ 이상 (층수, 연면적, 세대수 추후 변동 가능)
  - ④ 조합원수 : 33명
- 2.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3. 입찰참여자적**
  - ①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 ② 허그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상위업체
  - ③ 입찰보증금 : 일금12억원(시공자)
  - ④ 조합운영비 대여 가능업체 : 이주 전까지 최소 30억원 대여 (허그자금 15%별도)
- 4. 현장설명회**
  - ①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요일) 오후 2시
  - ② 장소 : 조합사무실- 정음시 연지동 45-6 205호
  - ③ 구비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참석자 신분증
- 5. 입찰마감 및 장소**
  - ① 입찰마감 : 2022년 10월 6일(목요일) 오후 2시
  - ② 입찰장소 : 조합사무실(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6. 기타사항**
  - ① 입찰 관련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지침서 참조.
  - ②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 바람.
  - (☎063-531-6200)(F.531-6201)
  -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022년 9월 8일  
연지동 348-12번지 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전 경 석 (직인생략)

### 분할합병공고

주식회사 창경(이하 '갑'이라한다)과 주식회사 금강엔지니어링(이하 '을'이라한다)은 2022.09.06. 각 주주 총회결의로 '갑'은 그 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외계서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8일

**갑 주식회사 창경**  
전라남도 함평군 화교면 학동로 90-2  
대표이사 백재선 외인

**을 주식회사 금강엔지니어링**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영한정로111. 2층  
대표이사 박정갑

### 분할합병공고

2022년 9월 6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대원엔지니어링(이하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의 전기공사업부분의 권리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외계서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8일

**갑 주식회사 대원엔지니어링**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앙로 26-1(금호동)  
대표이사 조기원

**을 주식회사 대원엔지니어링**  
충청남도 논산시 중양로384번길 61.  
하나빌 101호(취암동)  
사내이사 조미경

### 분할합병공고

2022년 9월 5일 주식회사 뉴해피에너지(갑)과 하남전기개발 주식회사(을)은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재산(영업)의 일부(전기공사업부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제정일 익일 부터 1개월 이내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8일

**갑 주식회사 뉴해피에너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의병로 165  
대표이사 박 소이

**을 하남전기개발 주식회사**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의병로 165  
대표이사 박도성

###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빛고을엔지니어링(이하 '갑'이라 한다)과 백승개발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2년 09월 01일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정일로부터 1개월 내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8일

**갑 주식회사 빛고을엔지니어링**  
광주광역시 남구 군본로148번길 3 (원산동, 남부아파트 상가 1층9호)  
대표이사 신동식

**을 백승개발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대명길 1-6(대명동)  
대표이사 김경수

###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미래이파워(갑)과 주식회사 테일엔지니어링(을)은 2022년 09월 07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의 재산(영업)의 일부(전기공사업, 등록번호 : 전남-01946호)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갑]이 합병하고 [을]은 존속하되 [갑]은 상법 제530조 3 제3항에 의거하여 [을]로부터 인수한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회사들의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각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 공고 제정일 익일부터 1개월 내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8일

**갑 주식회사 미래이파워**  
전라남도 함평군 화교면 고막천로 804  
대표이사 김철식

**을 주식회사 테일엔지니어링**  
전라남도 함평군 화교면 고막천로 804  
대표이사 한희원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임재문(490430-XXXXXX)  
• 최후주소 : 여수시 남면 송고지길 43-1  
• 등록기준지 : 전남 여수시 남면 유송리 611  
피상속인 망 임재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비원 순천지원 2022-단407호로 신청하여 2022년 9월 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수증서 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9월 8일

• 상속인 : 1. 임용수(750622-XXXXXX) 여수시 여문2로 197, 301동 206호 (여서동, 현대아파트)  
2. 임지숙(770729-XXXXXX) 남양주시 늘음3로 65-26, 1319동 302호 (호평동, 호평마을공동체스퀘어)  
• 신고기간 : 2022. 9. 8. ~ 2022. 11. 18.  
• 채권신고처 : 상속인 1. 임용수의 주소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박한수(420410-XXXXXX)  
• 최후주소 :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동 386번길 75  
• 등록기준지 : 전남 완도군 고금면 세동리 283  
피상속인 망 박한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비원 해남지원 2022-단72호로 신청하여 2022년 9월 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수증서 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9월 8일

• 상속인 : 박광선(751014-XXXXXX)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24 (하대원동)  
• 신고기간 : 2022. 9. 8. ~ 2022. 11. 18.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박광선의 주소

## 공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냉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적 : 공장 150평, 방통층고 200평 (급냉동, 방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 최신기계설비반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70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내대 •**

**북 구**

- 동 경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 경 525-3761
- 신 만 222-8711
- 원 신 571-7658
- 오 처 266-7001
- 남 통 433-1503
- 우 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936
- 동 명 222-0054
- 동 부 225-8001
- 송 화 675-6605
- 충 정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936
- 벽 은 651-1833
- 북 신 673-6936
- 송 화 675-6605
- 진 명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 광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명 376-6511
- 통 명 603-0311
- 화 정 369-1625

**광 산 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광주일보** |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